

지역 공간 연결 스토리텔링 제안

– 수원 ‘화성·화성행궁·팔달문 전통시장’ 일대 콘텐츠와 현장을 중심으로

Storytelling Proposal of Connecting Local Areas

: Focusing in the content and the site of ‘Hwaseong, Hwaseong Temporary Palace, Paldalmun Gate Traditional Market’ in Suwon

노혜진(단국대)

차례

- | | |
|------------------------|-----------------------|
| 1. 서론 | 3. 지역 공간 연결 스토리텔링 |
| 2. 지역 관련 기존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 1) 트레일 스토리텔링 |
| 1) 역사문화 콘텐츠와 예술·공연 콘텐츠 | 2) 설화를 활용한 벽화골목 스토리텔링 |
| 2) 출판물 | 4. 결론 |
| 3) 현장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 |

1. 서론

본 연구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화성과 화성행궁, 팔달문 전통시장’ 일대의 상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간 연결 스토리텔링을 제안한 것이다. 수원시 팔달구의 ‘화성·화성행궁·팔달문 전통시장’ 일대는 18세기 문화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렸던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선 제 22대 왕인 정조의 오랜 꿈과 염원을 담은 공간이자, 근대 조선의 변화와 좌절이 점철된 공간이다. 그리고 현대로 이어져 찬란한 과거를 재현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1789년 정조는 양주 배봉산(현 서울시립대 뒷산)에 있던 장헌세자의 원침 영우원을 당시 수원부 읍치(현 용릉)로 옮기는 천봉을 단행했다.¹⁾

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17 수원화성』, 홍익문화사, 2014, 71쪽.

그리고 기존에 있던 수원부 읍치를 팔달산 동쪽으로 이전했는데, 이 지역이 현재의 '화성·화성행궁·팔달문 전통시장' 일대를 포함한 곳이다. 해당 지역은 팔달산을 기준으로 여러 역사·문화 자원이 분포한다. 팔달산에 위치한 수원 화성은 전체 수원 화성의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포루(1), 서이치, 서장대, 서노대, 서암문, 서포루(2), 효원의 종, 서삼치, 서남암문, 서남일치, 서남각루, 남포루, 남치'가 있으며 이는 팔달문과 연결된다. 팔달산 중간에는 성신사가 있고, 밑으로 화성행궁과 화령전이 있으며, 화성행궁 앞에는 광장이 펼쳐진다. 광장을 지나 차도 건너편으로 내려가면 수원천이 흐르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에 전통시장이 있다. 팔달문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화성과 화성행궁이 있고, 동쪽에는 팔달문 전통시장이 위치하는 것이다. 전통시장은 '팔달문 시장, 지동시장, 못골종합시장, 영동시장, 미나리광시장, 시민상가시장, 남문로데오시장, 남문패션 1번가, 구천동공구시장' 등으로 이를 통칭하여 '팔달문 전통시장'이라 부른다. 팔달문 전통시장에는 상점 외에도 시장의 역사와 상인들의 삶을 전시한 '유상박물관', 시장 홍보와 문화 체험 등 다목적 문화공간인 '문화영토 사통팔달', 화성과 관련한 문화재 및 기록을 전시하는 '수원 화성 박물관' 등의 관광기관시설이 있다.

이 지역이 현재와 같은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되기까지 이곳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의해 화성행궁과 관아가 강제로 철거되었고, 6·25전쟁 때는 폭격으로 화성 성곽이 붕괴되고 훼손되었다. 이후 화성 등의 문화재 소실에 대한 문제성을 자각한 수원 시민들과 수원시의 복원 노력이 전개되어, 1963년에는 수원 화성이 사적 제 3호로 지정되었고, 지자체의 지속적인 복원 및 문화관광 활성화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 말 시작된 화성 복원운동은 1996년 본격적인 복원공사가 추진되어 2003년 보수·완공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현재로 일부 성곽의 복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주목을 받았다. 특히,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지 화성 문화에 대한 총 4,587억의 투자가 이뤄졌고,²⁾ 지자체와 민간차원에서는 ‘축제, 공연, 전시, 디자인, 출판물’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해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증가했다. 문화 행사·축제·공연 외에도 영화 <왕의 남자>와 드라마 <대장금>을 화성행궁에서 촬영함으로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류 명소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관광객의 증가는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했으며, 지역의 이미지를 브랜드하기 위한 사업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팔달문 전통시장’은 수원시에서 추진한 사업의 일환으로 스토리텔링 브랜딩 작업을 거쳐 상업지이자 관광지로 이미지를 탈바꿈하기도 했다.

이에 관하여 건축계획의 입장에서 지역 활성화³⁾를 거론하기도 하였고, 전통시장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연구⁴⁾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역의 브랜드화와 관광객의 체험 연구⁵⁾도 시행되었고, 지자체에서 시행한 문화콘텐츠의 가치제고를 위한 연구⁶⁾에서 수원 화성과 관련한 문화콘텐츠가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수원 지자체에서는 수원 화성과 관련한 연구서를 발간하였고, 민간 차원에서도 화성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한 출판물을 발행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화성 관련 역사·문화 자원에 관한 연구와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및 사업 연구이다.

2) 이용호, 『수원화성의 보존과 향후 계획』, 『건축』 제53권 제11호, 대한건축학회, 2009, 50쪽.

3) 김영빈, 『문화제와의 연결을 통한 상업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화성과 지동시장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4) 김영빈·이현호, 『공공성 요소를 통한 전통시장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연구: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 제31권 제1호(통권 제55집), 2011, 57~58쪽.

5) 김민지·이태희, 『수원화성 체험(4Es)이 관광객-관광지브랜드 관계(BRQ)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4권 제3호, 한국사진지리학회, 2014, 105~117쪽.

6) 김진형, 『지자체의 문화콘텐츠 가치제고를 위한 멀티유즈(Multi Use) 체계 적용방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4.

그런데 이 지역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는 지역주민과의 연계성 고려가 다소 결여되어 있다. 특히 변모한 지역 공간의 현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공간의 지속적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⁷⁾ 과거 이 지역은 주민들에게는 주로 '생활 주거지'의 공간이었지만, 점차 '관광 지구'로 변모하여 현재 지역주민에게는 생활공간이자 문화관광 공간으로의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공간과 주민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 3월말에는 6,927세대였으나, 2015년 3월말에는 6,360세대가 살고 있는데,⁸⁾ 생활터전이 관광 지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였다. 더불어 교육기관의 수도 줄어들어 현재 유치원 3곳과 초등학교 2곳이 있으며, 두 곳에 불과한 초등학교 중 한 곳은 현재 분교 상태이며 추후 폐교될 예정이다. 폐교 후에는 학교부지 건설로 인해 훼손 되었던 화성 문화 공간의 형태를 복구할 예정이다. 지역 공간의 성격이 변하며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문화 복원·부흥의 관광 지구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화관광 지구로의 특수성을 토대로 생활 터전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것이다. 이에 지역과 관련한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의 현재를 살피고 현장을 검토하여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주민 생활 사이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고는 2장에서 '화성·화성행궁·팔달문 전통시장' 일대와 관련한 기존 콘텐츠를 고찰하고 지역의 현장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점검하여 지역의 특색을 담은 스토리텔링으로 지역의 상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3장은 2장을 바탕으로 지역의 분산된 공간을 융합

7) 공간 정의와 관련하여 '김광욱, 「설화를 활용한 공간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제주 남부 해안도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통권2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90~116쪽에서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의 '공간'은 지역 내에 위치한 구체적인 지점을 의미한다. 이때의 공간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을 뜻하는 '장소' 보다는 범위가 넓으며,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문화제가 있었던 곳, 골목과 같이 여러 지점을 연결한 포괄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8) 수원 시청 통계 자료 참고.(www.suwon.go.kr)

하고 연결하는 스토리텔링을 제시하고자 했다.

2. 지역 관련 기존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1) 역사문화 콘텐츠와 예술공연 콘텐츠

‘화성·화성행궁·팔달문 전통시장’ 일대와 관련한 역사문화 콘텐츠에는 ‘18세기 정조 대에 발생한 역사문화 콘텐츠’와 ‘근대 및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역사문화 콘텐츠’, ‘18~19세기 불교 및 토속 종교와 천주교 박해 등의 역사문화 콘텐츠’, ‘지역 설화 형태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역사문화 콘텐츠

시기	콘텐츠 종류
18세기 정조 시대	화성, 화성행궁, 이아 더, 관거리, 우시장 거리, 팔부자 거리, 화령전, 성신사, 팔달문 동종, 팔달문, 정조 동상, 수원천의 버드나무, 화성행궁 느티나무
근대 및 일제강점기	신사를 건설했던 자리, 종로거리, 나혜석 생가 터, 수원 부자 양성관과 99칸, 신봉초등학교, 정조 어진, 3·1운동 지역.
18~19세기 종교	수원성당, 빨리 화랑, 화성 및 팔달문 장터 내 천주교 성지, 팔달사, 수원 포교당 등.
고려~조선시대 설화	송충이 깨문 이야기, 팔달산의 유래, 채제공 관련 설화, 능행차로 바뀐 집 구조 설화, 축성비 관련 설화, 능참봉 설화, 벼락과거 설화, 팔부자 거리 설화, 소나무마다 콩 볶음 설화 등.

앞의 <표 1>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화성과 관련된 여러 문화재, 보물, 사적, 자료 등이 있으나, <표 1>는 본 연구 범위 지역인 ‘화성·화성행궁·팔달문 전통시장’ 일대와 관련한 것을 중심으로 규합해보았다. 이러한 역사

문화 콘텐츠는 지역 스토리텔링의 기본이 되는 원천 콘텐츠이다. 그러나 <표 1>에서 제시한 콘텐츠 중 현재 문화관광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18세기 정조 시대에 이루어진 업적과 일화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콘텐츠가 수용되었을 뿐, 근대 및 일제 강점기와 관련한 역사문화 콘텐츠나 설화와 관련한 콘텐츠는 비교적 변용과 활용의 정도가 미약했다. 따라서 <표 1>에서 제시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보다 다양하게 응용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한 형태로 스토리텔링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지역의 예술·공연 콘텐츠는 ‘수원 화성’과 ‘화성행궁’을 소재로 하여 수원문화원, 수원화성문화재단, 수원화성운영재단 등이 주최한 대규모 축제와 팔달문 전통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있다. 자세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예술·공연 콘텐츠

행사 명칭	세부 내용	시기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해경궁 홍씨 진찬연, 정조대왕 친림 과거시험, 수원사랑 등불축제, 수원 음식문화 축제(장소: 화성행궁주차장)	10월 8일~ 10월 11일(4일간)
수원연극축제	공연예술축제, 연극, 음악, 퍼포먼스, 거리극, 수원화성 장소 제공	5월 1일~ 5월 5일(5일간)
수원화성 국제음악제	클래식 페스티벌	2016년 개최 예정
수원 시티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1코스 수원화성 코스 : 수원역→해우재→화서문 경유→화성행궁→장안문 경유→화홍문(방화수류정)→연무대→수원화성박물관→수원역 제 2코스 화성·오산시 연계코스 : 수원역→화서문→장안문→화홍문→화성행궁→연무대→중식(지동시장)→용건릉→용주사→물향기수목원→수원역 	1일 2회, 10시/14시

지역 공간 연결 스토리텔링 제안

행사 명칭	세부 내용	시기
수원 화성 달빛 동행	야간투어, 성곽길 관람(초등학생 이상)	2015년 4월 27일 실시. 5월(29~31일), 6월(27~30일), 7월(29~31일), 8월(28~30일), 9월(25일), 10월(27, 28일)
수원 화성 상설체험	애니메이션 ‘화성이와 함께 하는 수원화성여행’ (장소: 수원화성홍보관, 무료)	1회에 20분 소요
	화성열차(팔달산↔연무대)	1일 12회 운행
	국궁체험(장소: 연무대)	연중
	효원의 종 타종(팔달산 동종)	연중
수원 화성행궁 (행궁비용=엽전)	민속놀이(널뛰기, 투호, 무료)	4월~10월 토·일·공휴일 10:00~16:30
	뒤주체험(무료)	
	음성안내기 듣기(행궁비용 2,000원)	
	한자 스티커 붙이기 (행궁비용 1,000원)	
	스탬프 찍기(스탬프지 500원)	
	전통 떡 체험(엽전 1냥)	
	한지 부채 만들기 체험(엽전 1~3냥)	
	도자기 만들기(엽전 1냥)	
	비즈공예(엽전 1~3냥)	
	장용영 갑주 입어보기(친위부대인 장용영의 갑 옷을 입어보는 체험, 행궁비용 3,000원)	
	대장금 의상 입어보기(행궁비용 3,000원)	
	왕족 의상 입어보기(행궁비용 3,000원)	
수원화성 테마체험	리틀정조체험학교(초등학교 3~6학년)	공고 기간
	수원화성 1박 2일 테마여행	
	수원화성 얼음썰매장	
수원 화성 관람	통합관람(화성, 화성행궁,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매주 월요일 박물관 휴무)(요금: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아름다운 행궁길	화성행궁부터 팔달문까지 약 420미터, 공방과 갤러리(문화예술 전시 공간), 식당이 위치함. 3~10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행궁길 지역기반단체에서 지역주민 등과 협력하여 공예체험, 시식코너, 먹거리 행사, 공연 개최	연중

행사 명칭	세부 내용	시기
팔달문시장 거리축제	팔달문 일대 전통시장에서 개최	매년 5월 중 공고 기간
팔달문시장 능수벚꽃 축제	수원천 남수교에서 개최	매년 4월 중 공고 기간
전통시장 토요문화공연	지동교 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표 2〉에서 제시한 화성 관련 문화 행사를 살펴보면, 행사 장소는 화성 성곽 및 화성행궁과 광장, 상설 기관을 중심으로 열린다. 특히, ‘화성 열차’는 ‘화성’ 전체를 관람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성곽 투어’는 ‘화성 성곽’을 걷는 올레길과 유사하다. 화성행궁 및 상설 기관에서 열리는 체험 프로그램은 관광객이 무료로 이용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극 관람과 같은 문화행사와 갈비축제 등 프리마켓 형태의 먹거리 행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공연 콘텐츠는 대부분 조선시대 정조의 화성 축성과 관련한 것이 많아,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종적·횡적으로 고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앞서 〈표 1〉에서 살펴본 역사문화 콘텐츠 중에는 ‘근대 조선, 일제 강점기’를 포함한 역사와 알려지지 않은 설화와 같은 신선한 요소가 많으나, 이것에 대한 고려 없이, 문화를 일부 시대로 편중시켜 활용한 것이다. 이 점에서 예술·공연 콘텐츠는 지역 공간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사가 열리지 않는 평상시에는 이 지역의 활성화 정도가 비교적 낮다. 이는 각 공간의 연계 부족에서 연유한다. 행사가 개최되었을 때, 많은 참여를 보였던 관광객은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자발적 형태의 관광을 해야 한다. 이때 지역의 정보를 많이 보유하지 않은 외부 관광객은 ‘화성’만 관광하거나 ‘화성행궁’만 체험하는 형태로 단기적 관광에 그칠 여지가 있다. 문화 관광 지구로 변모한 이곳은 관광객이 지역에 오래 머물러야 지역주민에게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한 생활 패턴이 가능하다.

특히, 화성 체험에 나선 관광객을 연구한 2014년 논문에 따르면, 284명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관광객의 체재일 수가 1일의 경우는 271명으로 95.4%에 달했고, 2일 이상 머무는 사람은 13명에 그쳐, 관광객이 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머물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그러나 화성과 화성행궁에 모여든 관광객이 지역의 골목과 시장으로도 범위를 넓혀 관광 행위를 하게 된다면, 관광객의 체재일 수를 장기화 할 수 있으며, 행사 시행에 관계없이 지역은 항상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곳의 상시 활성화는 외부 관광객의 단기적 관광을 장기적 관광으로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화성과 화성행궁을 제외하고 활용되지 않은 공간을 활성화하여 정체성(正體性)과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다음으로 팔달문 전통시장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 행사는 춤 공연, 노래 경연대회 등으로, 주말과 일정 공고 기간에 열리는 시장 축제이다. 물건을 사기위해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의 참여와 호응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행사 상의 문제보다 정보 제공의 피드백 여부에서 과제를 지닌다. 어떠한 행사가 언제 열리는지 알려주는 ‘안내지·홍보지’ 등 팜플렛 자료에 이미 기한이 지난 정보가 제공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점은 변동되는 행사에 관한 홍보가 미흡하더라도 관광객이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행궁광장 남측으로 ‘전통예술공연장’과 ‘수원미술관’이 건립되고 있다.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시설이 마련된다면 ‘무예 24기 공연’ 등 다양한 예술 행사가 열릴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화 행사와 연결하여, 예술 공연 간 연계 관광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상시적 지역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9) 김민지·이태희, 『수원화성 체험(4Es)이 관광객-관광지브랜드 관계(BRQ)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건지리학회지』 제24권 제3호, 한국사건지리학회, 2014, 111~112쪽.

2) 출판물

본 지역과 관련한 콘텐츠는 현재까지 상당수 출판물로 간행되었다. 출판물의 대상 독자에 따라 성인과 아동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¹⁰⁾

〈표 3〉 출판물 현황

대상 독자	출판물	분야
성인	이규진, 『과제』, 책발, 2014.	소설
	윤재천 외, 『성곽의 미, 수원화성』, 코드미디어, 2014.	수필
	브랜드스토리, 『왕이 만든 시장』, 멋진세상, 2011.	스토리집
	최진연, 『수원화성, 긴여정』, 주류성, 2011.	여행(답사기)
	김동욱,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02.	인문서
	한영우, 『〈반차도〉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 효형출판, 2007.	
	김준혁,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여유당, 2008.	
	김진국, 『정조의 흔 화성을 걷다』, 이너스, 2010.	
아동	문재인, 『만화로 배우는 수원 화성 바로알기』, 수원시, 2008.	만화
	이정범, 『수원 화성과 정약용』, 서강북스, 2005.	동화
	홍은미, 『효자 원이』, 윈터랜드, 2006.	그림동화
	황은주, 『정조와 함께 가는 8일간의 화성행차』, 그린북, 2013.	
	조소현, 『조선의 신기술과 개혁 정신이 빛은 위대한 유산, 수원 화성』, 열린박물관, 2006.	체험학습 관련 기획 도서
	김준혁, 『정조의 꿈이 담긴 조선 최초의 신도시, 수원 화성』, 스쿨김영사, 2006.	
	양대승, 『발도장 쿵쿵 가자! 조선 실학, 수원 화성』, 도서출판 핵교, 2011.	
	김명선, 『우리아이 첫 수원화성 여행』, 삼성당, 2011.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은 인문서를 중심으로 ‘소설, 수필, 답사기’ 등의 형태로 출판되었다. 대부분 민간

10) 수원시 및 박물관에서 발행한 총서는 학술적 목적이 강하기에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형태로 제작된 출판물이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브랜드스토리에 서 만든 『왕이 만든 시장』이다. 다른 도서들이 ‘수원 화성’의 역사를 인문서로 혹은 소설로 재조명한 것임에 비해, 이 책은 팔달문 전통시장에 관한 도서이다. 팔달문 전통시장을 정조 이야기와 결합하여 수원 지역 시장 상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브랜딩 한 결과를 출판물로 간행한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 관련 스토리텔링은 대부분 기획 도서가 주를 이룬다. ‘어린이책’이라 함은 ‘어린이를 독자 대상으로 하여 만든 책’으로 일정 부분 교육의 형태를 띠고 간행한다. 그런 까닭에 ‘어린이책’에는 문학과 비문학, 혹은 그 사이를 오가는 다양한 글쓰기 방법이 존재한다. 특히,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어린이책의 종류는 실로 방대하기에, ‘수원 화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책은 ‘역사동화, 그림동화’ 등의 창작 형태의 스토리텔링과 비문학적 성격의 ‘학습, 교양’ 등의 기획 도서 형태 스토리텔링으로 나뉘었다. 이 외에도 만화 형태의 스토리텔링도 존재한다. 그러나 출판물의 대부분이 정조 대에 초점을 맞춰 스토리텔링 되어, 콘텐츠 활용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융합한 스토리텔링이 요구된다.

3) 현장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현장 콘텐츠는 현장에 있는 조형물, 예술품, 자연물, 골목 등을 의미한다. 관광객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재미 요소를 가미한 스토리텔링이 주를 이룬다. 먼저, 아래 <그림 1>의 사진에서처럼 전통시장 정조 동상, 팔달산의 정조 동상을 제시할 수 있다.

팔달문 전통시장에 비치한 정조 동상은 시장의 브랜드 이미지 작업의 하나로 설치된 것이다. 조선 제 22대 왕인 정조가 팔달문 전통시장을 만고자 동상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초기 의도 및 관심과 달리 현재는 동상 주변에 짐을 쌓아 두거나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는 등 방치된 측면이



〈그림 1〉 현장 콘텐츠1

없이 남아 스토리텔링으로의 온전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팔달산의 정조 동상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팔달산 중간에 위치한 정조 동상은 정조의 업적을 기리고 관광객에게 이 지역문화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정조 동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한 정보 제시가 거의 없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아닌 타 지역 관광객의 경우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기에 활용도가 낮다. 다만, 화성열차가 지나가는 길목과 근접하여 열차에 탑승한 관광객에게 정조 동상을 소개하는 안내 방송을 한다. 그러나 방송 장비의 노후 등으로 소리가 작고 잡음이 있으며, 정조 동상 뒷면의 일부를 지나가며 간단히 보는 형태여서 충분한 관광이 어렵다. 따라서 도보 관광으로 두 정조 동상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의 고안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그림 2〉의 현장 콘텐츠는 화성행궁 광장 부조와 화성행궁 느티나무이다.

화성행궁 광장 부조는 정조대왕 능행차와 화성 축성 모습을 조각하여 표현한 것이다. 광장을 역사 공간으로 생생히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나, 실제 광장이 관람객들의 ‘연날리기’, ‘자전거 타기’ 등 놀이·체험 공간으로 활용되어 광장 부조에 담긴 스토리텔링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따라서 광장에서 재현 행사 등을 개최하여 부조의 예술성을 현재로 연계하

는 방법, 이 지역을 찾은 가족 관람객을 중심으로 광장의 놀이문화를 특색 있게 마련하는 방법 등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그림 2〉 현장 콘텐츠2

마지막으로 화성행궁 안에 자리한 느티나무는 관람객에게 ‘소원 빌기’ 나무로 통한다. 이 느티나무는 600년 이상 된 노거수로 화성 성역 이전부터 수원을 지켜온 신령스런 나무이다. 느티나무의 잎이나 가지를 꺾으면 해를 입고, 소원을 적어 나무 주위에 걸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을 스토리텔링화 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느티나무가 화성행궁 신평루 앞에 3그루가 더 존재한다는 것이다. 행궁 안에 있는 느티나무가 관광객들에게 기원의 대상으로 스토리텔링화 된 것에 비하면 행궁 밖에 있는 세 그루의 느티나무는 관람객의 그늘 벤치로만 사용되고 있다. 600년 이상 된 보호수가 이곳에 있음은 역사적인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직접 느티나무를 심었던 정조의 사연을 스토리텔링에 반영한다면, 행궁 안과 밖의 공간적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앞서 살핀 설치물·예술품·자연물과 관련된 현장 콘텐츠와 달리, 길 형태의 현장 콘텐츠로 행궁동 ‘공방거리’와 ‘벽화골목’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지역의 ‘벽화골목’과 ‘공방거리’가 지역 주민의 노력과 자발적

인 참여로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공방거리는 2010년 행궁길 만들기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지역에서 공방을 운영하던 상인 7명은 회장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행궁길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다른 주민들을 찾아가 낙후된 골목을 되살려보자고 설득했고,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마을르네상스사업’¹¹⁾의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마을르네상스사업’의 하나로 2011년 행궁동 공방거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으로 행궁길 도로, 간판, 건물 외벽, 담장 벽화 등 주변 환경이 정비되었고, 여러 공방이 입주했다. 현재, 이 골목길은 ‘아름다운 행궁길’이라 불리며, 공방과 갤러리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만든 문화예술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래의 〈그림 3〉은 행궁길 지도이다.



〈그림 3〉 행궁길 지도

연두색 표시는 문화예술 공간(공방: 33점포)이며, 노란색 표시는 음식점(49점포), 연보라색은 기타(편의점, 은행: 9점포)이다. 공방거리가 문화예술 거리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음식점의 수가 공방의 수보다 많

11) 마을르네상스는 마을만들기 정책브랜드로, 기존 개발정책을 반성하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잃어버린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여 새롭게 도시를 만드는 범 시민운동이다. '사람 중심의 마을공동체 회복',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실천', '새로운 미래 창조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삼는다. (마을르네상스센터: www.maeulcenter.or.kr)

다. 공방의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한지, 칠보, 아트, 공예, 캐릭터 상품, 한복, 규방공예, 염색, 회화, 섬유예술, 설탕공예’ 등이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지역 골목에 자리한 상점과 문화 시설은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점은 서울의 인사동 등 다른 지역의 공방 골목과 큰 차이가 없다는 한계를 남기게 되었다.

다음으로 행궁동 ‘벽화골목’은 동네 골목길에 벽화를 그려 지역에 예술성을 부여하고자 애쓴 주민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1996년 시작하여 2004년 조성된 문화플랫폼인 ‘대안공간 눈¹²⁾’에서 2010년 진행한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 프로젝트 행궁동 사람들’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 ‘국제 레지던시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들이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벽화 그리기에 참여했다. 같은 해, 수원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도움을 받아 ‘행궁동 예술마을만들기’로 벽화 골목이 추진되었다. 이후, 2013년 이 지역은 생태교통 시범 마을로 운영된 것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은 ‘처음 아



〈그림 4〉 벽화골목

12) 행궁동에서 50년을 살아온 김정집, 이윤숙 부부는 철거 예정 건물에 대안공간 눈을 세우고, 젊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들어오도록 했다. 현재, 행궁동 벽화골목투어를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하고 있다.(대안공간 눈: www.spacenoon.co.kr)

침 길', '사랑하다 길' 등의 여러 테마로 벽화 골목을 확대해갔다. 골목길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행궁동 지역은 영화·드라마의 촬영지로 활용되었고, 2015년 3월에는 이 지역에서 촬영한 웹드라마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가 방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행궁동 벽화골목 역시 어느 곳이나 볼 수 있는 '사랑의 열쇠 고리', '천사 벽화' 등이 있으며, 이 지역만의 개성을 담은 골목의 독특함이 적었다.

그 예로, 앞 <그림 4>의 사진에 제시된 벽화골목의 입구와 내부를 검토한 결과, 골목 입구에서 '이야기가 있는 옛길'을 표방하였으나, 벽화골목 내부에 제시된 벽화는 놀이하는 아이들의 모습, 꽃과 풍경을 그린 그림 등 보편적인 벽화였다. 벽화 솜씨가 뛰어나더라도 그림에 담긴 이야기가 지역만의 특성과 고유성이 없다면, 다른 지역의 벽화골목과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얼마 전 만들어진 '나혜석 이야기 길'은 지역만의 특색을 벽화골목에 입히려는 노력을 보였다. 나혜석은 이 지역에서 태어난 여류 문인으로 근대의 중요 인물이다. 이런 나혜석의 작품을 골목길과 결합하여 공간의 예술적 측면을 살린 점은 벽화골목의 특색과도 연관될 수 있다.



<그림 5> 벽화골목의 나혜석 이야기 길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다시 찾은 '나혜석 이야기 길'은 앞의 <그림 5>의

사진처럼 스토리텔링 진행이 일부 담벼락에 그치고, 이마저도 나혜석의 생가 터와 길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 채 이야기적 요소가 끊겨 관광객이 동선을 찾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나혜석과 관련한 스토리텔링의 완성도가 미흡한 때문이며 지역 주민이 장소 제공 외의 역할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미흡함을 남겼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과 공감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노력에 힘을 보태 줄 지역만의 정체성과 독특함을 지닌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즉, 벽화의 스토리 요소를 지역에 얹힌 이야기 등에서 끌어오거나 이를 현대 미술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처럼 지역 주민이 벽화 장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입혀진 벽화에 관한 스토리를 인식하고 자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이 외에도 현장 콘텐츠에는 수원천을 따라 조성한 이야기길이 있다. 수원천에 마련한 이야기길은 유명 작가인 이현세, 이상세 작가가 ‘정조와 팔달문 시장 이야기’ 12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수원천 길을 따라 전시한 콘텐츠였다. 그러나 이쉽게도 이 지역을 설명한 안내서과 관광지도에는 이야기길이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아래 〈그림 6〉의 사진처럼 이야기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림 6〉 기존 이야기길 훼손과 방치

이야기길이라는 표시가 있던 곳에는 ‘가구거리’와 ‘통닭거리’에 대한 안내판이 있으며, 이야기길이라고 불렀던 수원천 길은 지역 상인들이 쌓아 놓은 물건과 팔기 위해 진열한 화초로 혼잡했다. 기존 이야기 길의 훼손은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이 곧 관광 공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비록 상인들이 생계를 위해 물품을 쌓아 길이 혼잡하더라도 관광객이 이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역사·문화 공간과 연결되어 관광의 상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3. 지역 공간 연결 스토리텔링

앞서 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 필요한 스토리텔링은 지역에 분산된 공간을 연결하고 융합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종적·횡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지역주민의 생활 및 생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열린 ‘경기도 벚꽃 축제’ 사례를 살펴보면¹³⁾, 지역의 공간 연결이 시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경기도 벚꽃 축제’는 수원역 근처에 자리한 도청에서 시작한 ‘벚꽃 관람 행사’였다.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은 꽃길을 따라 팔달산을 오르고 화성을 돌아 화성행궁까지 걸어 올라갔다. 길을 따라 걸어야 했기에 관람객들은 차량을 산 아래 멀찍이 주차해야 했다. 성곽을 따라 등산 겸 올라온 관람객들은 행궁동에 이르러 ‘화성행궁’과 ‘광장’ 등을 구경했다. 그리고 허기를 달래고자 팔달문 전통시장으로 먹거리를 찾아 내려갔다. 이 과정에서 골목을 지나는 관광객의 수가 많았다. 덕분에 주변의 주차난은 감소하고, 지역의 공간은 관광하는 사람으로 넘쳐났으며, 팔달문 전통시장은 높은 매출을 올려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일었다.

13) 신선미, 〈벚꽃 덕에 팔달문거리 웃음꽃〉, 《경인일보》, 2015.04.13, 제6면.

이것은 이 지역 스토리텔링이 '팔달산 화성 → 화성행궁 → 골목길 → 팔달문 전통시장 일대'처럼 각 공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함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때, 스토리텔링의 중심은 '팔달산 성곽 길'과 '공방거리', '행궁동 골목길', '팔달문 전통시장 길'처럼 공간과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와 방향 유도체계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길을 따라 걸으며 각 공간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향유하는 사슬 형태의 연결 스토리텔링으로 '트레일 스토리텔링'을 제안한다. 또한 골목에 정체성을 부여하여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골목 그 자체가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가 될 수 있도록 '설화를 활용한 벽화골목 스토리텔링'을 제안한다.

1) 트레일 스토리텔링

트레일(Trail)은 '자연, 역사·문화, 도시 등을 관광하기 위해 걸어서 따라 가는 코스'를 의미한다.¹⁴⁾ 일반적인 도보여행과는 달리 길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국·흔적의 의미로 동일한 색의 블록을 깔거나, 표시판, 색깔 띠 등으로 방향성을 지정하여, 도보에 동선 유도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트레일은 일반적으로 코스의 성격에 따라 '자연중심형 트레일', '문화중심형 트레일', '복합형 트레일'이 있다.¹⁵⁾ 이는 지역이 보유한 콘텐츠가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에 따라 트레일의 테마를 정하고 코스를 짜고 스토리텔링을 고안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 지역인 '화성·화성행궁·팔달문 전통시장' 일대의 성격을 보다 세밀하게 다루기 위해 '역사문화중심형 트레

14) 서인원, 『대구 도심 트레일 개발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12, 2쪽.

15) 트레일 연구와 관련하여 서인원, 『대구 도심 트레일 개발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12에서 트레일의 개념과 세계적 동향을 고찰하였다. 트레일은 코스의 입지와 공간 특성에 따라 자연·생태적 자원을 토대로 한 '자연중심형 트레일', 도시문화와 역사자원을 토대로 한 '문화중심형 트레일', 그리고 자연과 문화 등의 요소를 함께 활용하는 '복합형 트레일'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역사문화 콘텐츠와 관련한 것을 '역사문화중심형 트레일'로 예술·공예 콘텐츠와 관련한 것을 '문화예술중심형 트레일'로 정의하고 세부 개념화 하였다. 스토리텔링 유형은 각 트레일 코스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구축에 활용되는 콘텐츠의 공통점을 주제화하여 '테마'로 선정하였다.

일'과 '문화예술중심형 트레일'로 나누어 스토리텔링 방안을 살펴보겠다.

(1) 역사문화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

‘역사문화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은 이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트레일 스토리텔링이다. 시대별로 나타난 역사문화 콘텐츠를 토대로 조선시대와 관련한 트레일 스토리텔링과 근대 조선과 관련한 트레일 스토리텔링으로 공간 연계가 가능하다.

먼저, 조선시대와 관련한 트레일 스토리텔링은 <정조의 꿈이 머무는 공간, 조선의 수원>이다. 아래 <표 4>를 살펴보자.

<표 4> 역사문화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 유형1

테마	<정조의 꿈이 머무는 공간, 조선의 수원>
콘텐츠	조선 후기 관련 역사문화 콘텐츠
코스	팔달산 정조 동상 ⇨ 팔달산 화성 성곽길 ⇨ 화성행궁 느티나무 ⇨ 공방거리 ⇨ 팔달문 전통시장 정조 동상
핵심	1. 수원에서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꾼 정조의 이미지화. 2. 화성행궁 느티나무는 조선의 ‘차경’을 보여주는 문화재임. 건축물을 지을 때 자연물을 자르거나 없애는 형식의 ‘조경’과 달리 정조는 화성행궁 느티나무를 가꾸어 자연을 그대로 끌어안는 ‘차경’의 형태를 유지함. 우리나라 행궁의 차경 문화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유일한 사례임. 3. 정조가 추진한 종이 생산의 꿈은 현대의 공방 예술과 연결됨. 4. 정조는 팔달문 인근에 전통시장을 통해 사통팔달의 경제 중심을 꿈꿨고, 현재의 시장 문화로 남음.
트레일 동선 유도체계	▷ 낮 도보여행 ▷ 색깔 블록과 표지판을 활용해 방향성 지정

<표 4>에서 제안한 ‘역사문화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 유형1’은 정조 시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 스토리텔링에서 제외되었던 요소를 결합하

여 공간을 연결한 것이다. 특히, 화성행궁의 느티나무 이야기를 활용하고, 공방거리에 특성을 부여하는 작업과도 관련된다. 정조가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수원읍지에 화성행궁을 건설하며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제지소’를 설치하여 종이 생산을 육성하고자 한 것이었다. 실제로, 수원 화홍문에 지소동이라 부르는 곳이 있었는데, 질 좋은 종이를 생산하여 번성했던 기록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방거리’에 정조의 종이 산업 관련 일화를 연결한 이미지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공방거리와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표 4>와 관련한 트레일 동선 유도체계는 기존 트레일 동선 유도체계와 유사한 형태의 색깔 블록이나 표지판이다. 즉, 아래 <그림 7>에서 미국의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의 경우처럼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길에 붉은 벽돌을 깔아 트레일을 만들거나, 시청역에 임시로 부착한 띠 형태의 방향 표시 스티커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림 7> 트레일 유도 체계 기존 사례

다음으로, 근대 조선과 관련한 역사문화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 유형인 <좌절과 변화의 공간, 근대 조선의 수원>이 있다. 이는 다음 <표 5>과 같다.

〈표 5〉는 근대와 일제 강점기에 이 지역의 공간이 어떻게 변모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가를 통해, 공간에 담긴 역사적·문화적 명암을 살펴 현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트레일 스토리텔링이다. 특히, 밤이라는 시간적 요소를 활용하여 ‘영상 길’을 고안하여 공간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표 5〉 역사문화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 유형2

테마	〈좌절과 변화의 공간, 근대 조선의 수원〉
콘텐츠	근대 및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문화 콘텐츠
코스	팔달산 성신사(신사 터) ⇨ 화령진, 정조 어진 ⇨ 복원된 화성행궁(일제강점기 수원의료원 자리) ⇨ 신평초등학교 ⇨ 이아 터 ⇨ 종로사거리 3·1운동 현장
핵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선을 침략한 일제는 팔달산의 성신사, 화성행궁을 붕괴하고 성신사가 있던 자리에는 신사를, 화성행궁이 있던 자리에는 수원의료원과 신평초등학교를 세움. 2. 정조의 승하 후에 화령전에 보관되었던 정조의 마지막 어진은 일제에 의해 창고로 옮겨졌고, 이후 방화로 소실됨. 3. 일제는 정조가 세웠던 수원읍성의 관아(이아)를 헐었는데, 이후 현대에 성공회교회가 들어섬, 현재 이아 터 복원이 시작됨. 4. 일제의 치밀한 조선 역사문화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원 시민들은 수원 종로거리에서 3·1운동을 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자주의식을 표출함.
트레일 동선 유도체계	<p>▷ 낮 도보여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깔 블록을 활용하여 방향성 지정 <p>▷ 밤 도보여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과 결합: 화성행궁 붕괴 관련 사진, 수원 신사 관련 사진 등 근대와 관련된 사진을 활용해 ‘영상 길’로 형상화 함. - 야광 페인트 및 조명을 활용해 방향성 지정

마지막으로 수원의 종교와 관련한 근대 역사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수원, 종교의 꽃을 피우다〉라는 역사문화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을 제안할 수 있다.

〈표 6〉은 지역과 관련한 종교 요소를 묶어 종교의 장으로 공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발전했는지는 살피는 트레일 스토리텔링이다. 본 연구 지역은 비교적 범위가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천주교·토속종교 등과 관련한 유적이 남아있다. 여러 종교의 교류와 천주교 박해 등의 역사적 기록 또한 살필 수 있어, 마크를 활용하여 지역의 종교 공간을 연계하는 동선 유도체계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표 6〉 역사문화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 유형3

테마	〈수원, 종교의 꽃을 피우다〉
콘텐츠	종교 관련 역사문화 콘텐츠
코스	팔달사 ⇨ 화성 및 팔달문 내 천주교 성지 ⇨ 수원성당 ⇨ 뽕리 화랑 ⇨ 수원 천에 자리한 수원 포교당 ⇨ 팔달문 전통시장(영동시장) 근처의 거북산당
핵심	1. 팔달사와 수원 포교당을 통해 수원에 불교가 자리 잡은 역사를 돌아봄. 2. 화성과 팔달문 내에서 행해졌던 천주교 박해 장소를 돌아봄. 3. 수원에서 종교 개혁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서양인 선교사를 알림. 4. 영동시장 근처의 거북산당을 통해, 불교·천주교·토속종교 등의 다양한 종교의 조화를 엿봄.
트레일 동선 유도체계	▷ 낮 도보여행 ▷ 종교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마크를 활용해 방향성 지정

이상으로 ‘역사문화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의 세 가지 유형을 제안해 보았다. 이외에도 이 지역에 있는 기존 콘텐츠를 테마별로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트레일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예술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

‘문화예술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은 이 지역에 분포한 공연 및 전시를 중심으로 예술·공연 콘텐츠를 모으고, 관광객의 관람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록 고안한 트레일 스토리텔링이다. 이는 앞에서 살핀 ‘역사문화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과 달리 ‘현대’라는 시간적 요소가 스토리의 중심이 된다.

〈표 7〉에서 제안한 문화예술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은 공연 및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유동적인 속성이 강하다. ‘문화예술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은 〈현대의 수원, 놀이의 장〉이라는 유형을 고안하였다.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활용하여 공간 간 연계를 도모한 것인데, 이 가운데 화성행궁의 ‘가족 과거시험 재현’은 화성행궁 광장 부조를 활용하여, 이 공간에서 어린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백일장 형태의 과거시험 재현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좋을 듯해 한 코스로 제안해 보았다.

〈표 7〉 문화예술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

테마	〈현대의 수원, 놀이의 장〉
콘텐츠	예술·공연 콘텐츠
코스	팔달문 전통시장 축제 장소(매주 토요일, 4·5월) ⇨ 화성행궁 광장 ⇨ 화성행궁 공연(무예, 과거시험 재현) ⇨ 화성행궁(체험 프로그램) ⇨ 전통예술공연장과 수원미술관(2016년 예정) ⇨ 수원연극제(5월)와 수원화성음악제
핵심	1. 시기별로 연계 가능한 공연 및 전시를 바탕으로 마련. 2. 화성행궁 광장의 ‘연 날리기’와 ‘자전거 타기’, 화성행궁의 체험프로그램을 가족 관광객을 위한 형태로 활성화. 3. 화성행궁 광장의 부조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그림그리기 활동 등의 체험을 개최. 4. 화성행궁 광장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과거시험 재현 프로그램을 운영.
트레일 동선 유도체계	▷ 낮 체험 관광 ▷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동선 유도체계 활용. ▷ 공연 장소가 다른 트레일 코스와 결부될 때, 문화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 장소가 쉽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연한 유도체계를 도입함.

(3) 트레일 스토리텔링에 대한 전망

이상으로 트레일 스토리텔링을 ‘역사문화중심 트레일 스토리텔링’ 세 가

지 유형과 '문화예술중심 트레일 스토리텔링' 한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총 4가지 유형을 제안했다. 이러한 4가지 유형은 트레일 스토리텔링의 초기 제안이기에 이를 구체화 시킬 '트레일 스토리텔링 지도'와 '트레일 스토리텔링 소개 웹 사이트'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트레일 스토리텔링 웹 사이트의 경우는 이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외국어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매체 보완으로 트레일 스토리텔링을 적극 도입하여 이 지역의 공간을 연계한 관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트레일 스토리텔링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 일명 '트레일 지킴이'를 지정하여 트레일이 지나가는 지점을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지역주민에게 지킴이의 지위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러로 참여하며, 트레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맡겨 지역 주민과 협력해야 한다. 이때 지역주민에게는 일종의 문화해설사와 같은 자격이 부여되거나 혜택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상시적(常時的) 활성화를 위한 트레일 스토리텔링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설화를 활용한 벽화골목 스토리텔링

설화를 활용한 벽화골목 스토리텔링은 이 지역의 골목 및 거리에 설화를 입혀, 벽화에 지역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스토리텔링을 의미한다. 앞서 제시한 트레일 기반 스토리텔링과는 별도로, 행궁동 '벽화골목'에 지역 문화 요소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 터전 공간이 상시 관광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마다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마을 재생 정책의 일환인 '공공미술사업' 형태로 2006년부터 생성되었다. 그러나 지역에 부여된 벽화는 지역의 정통성 및 존재 가치와 관련성이 적은 이미지가 많아 벽화사업이 일시적

행사가 되곤 하였다.¹⁶⁾ 행궁동 벽화골목의 현장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이미 2장에서 고찰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달리 ‘화성, 화성행궁’과 연결된 행궁동 골목길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고유 콘텐츠를 지니고 있다. 즉, 역사·문화 콘텐츠인 화성과 관련한 여러 설화가 남아있으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다양한 설화와 앞의 2장에서 살펴본 설화 종류가 있다.

따라서 설화를 활용한 벽화골목 스토리텔링은 일종의 ‘화성 설화 벽화골목’ 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설화 벽화골목 스토리텔링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제안할 수 있다.

〈표 8〉 설화 벽화골목 스토리텔링 유형

유형 및 골목 명칭		설화 종류
1	〈정조와 소나무〉 벽화골목	정삼품 당상 소나무 이야기, 송충이 깨문 이야기, 소나무마다 콩 볶음이 이야기 등.
2	〈시간 여행, 화성〉 벽화골목	화성 축성관련 설화, 용한 지관 이야기, 정묘조 이야기, 벽락과거 이야기, 능참봉 이야기, 불기 한 대로 사형 집행 이야기, 수원 사람 배 타는 이야기, 민어로 집강 벼슬 얻은 이야기, 팔부자 거리 설화, 팔달산의 유래, 채제공 관련 설화 등
3	〈나라를 지킨 수원 사람들〉 벽화골목	기생이 부른 대한독립만세, 소녀의 독립운동 등.

〈표 8〉에서 제시한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정조와 소나무〉 벽화골목은 정조와 소나무에 얽힌 설화를 묶어 벽화로 형상화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설화에는 정조에게 벼슬 받은 소나무와 관련한 설화로 ‘정삼품 당상 소나무 이야기’가 있고, 정조가 소나무를 살리고자 송충이 깨문 설화인 ‘송충이 깨문 이야기’, 조정에서 정조의 명으로 소나무

16) 성영아·변민주, 『벽화마을 보존과 계승을 위한 정체성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제 14호,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2013, 241~251쪽.

의 훼손을 막기 위해 소나무에 콩 볶음 매단 설화로 ‘소나무 마다 콩 볶음 이 이야기’가 있다.

두 번째로 〈시간 여행, 화성〉 벽화골목은 벽화 예술로 형상화할 수 있는 수원 화성 축성 비화 설화 및 수원 사람과 관련한 설화를 묶은 것이다. 이 설화에는 ‘화성 축성비 관련 설화’, ‘용한 지관 이야기’, ‘정묘조 이야기’, ‘벼락과거 이야기’, ‘능참봉 이야기’, ‘수원 팔부자 거리 이야기’, ‘불기 한 대로 사형 집행 이야기’, ‘수원 사람 배타는 이야기’, ‘행행 길가 가옥구조 바뀐 이야기’, ‘민어로 집강 벼슬 얻은 이야기’, ‘팔부자 거리 설화’, ‘팔달산의 유래 설화’, ‘채제공 관련 설화’ 등이 있다. 이는 화성 축성과 이후 수원 사람과 관련하여 유래한 설화를 벽화 예술로 변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나라를 지킨 수원 사람들〉 벽화골목으로 일제강점기 3.1 운동과 관련하여 수원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하여 벽화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혜의원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기생들과 관련한 ‘기생이 부른 대한독립만세 이야기’와 치마 속에 비밀문서를 넣어 순사의 눈을 피해 대전, 청주, 안성 등지로 수십 차례 지령을 전달했던 소녀의 활약과 관련한 ‘소녀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활용하여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이야기를 골목 벽화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은 벽화를 통해 장소를 재해석하며, 지역이 지니고 있는 이야기를 시각예술과 결합한 형태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조와 소나무〉 벽화골목, 〈시간 여행, 화성〉 벽화골목, 〈나라를 지킨 수원 사람들〉 벽화골목의 세 유형을 만들고, 벽화 예술로 재탄생할 수 있는 설화의 종류를 제시해 보았다.

그 중에서도 수원 화성 설화는 18세기에 건설된 화성의 역사와 함께 발생한 것으로 ‘역사와 이야기의 관련성’을 지닌 특수 설화이다. 벽화의 소재가 된 설화가 이 지역에서 유래한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지역만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지역 관광으로의 ‘골목 문화’에 독특함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여, 비활성화된 골목과 정체된 공간에 새로이 관광

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골목이 관광객의 적극적 관광을 위한 이동 통로로 활용된다면 이 지역의 다른 공간과 연계한 코스 형성도 가능해진다. 긍정적으로는 지역 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벽화를 설명하는 스토리텔러로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관광 활성화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활용하여 행궁동 벽화골목을 ‘화성 설화 벽화골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대 예술 형태인 ‘설치 미술·시각 미술·조형 미술’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표현 양식을 적용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며, 효과성 여부도 면밀히 검토 보완해야 한다.

4. 결론

이상으로 수원시 팔달구의 ‘화성·화성행궁·팔달문 전통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공간 연결 스토리텔링을 제안해보았다.

‘화성·화성행궁·팔달문 전통시장’ 일대는 1789년 정조의 명을 시작으로 형성되어 화성이 건설되고 읍치가 조성되며 문화가 발생하고 융성했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며 화성행궁과 화성이 붕괴되고, 이 지역 일대의 문화재도 훼손되었다. 다행히 소실된 문화를 복원하고 다시 활성화 시키고자, 수원시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현재의 관광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199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2005년 이후 한류 열풍 등으로 이 지역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고, 외국인을 비롯한 관광객이 증가하여 ‘화성·화성행궁·팔달문 전통시장’ 일대에는 다양한 ‘축제·공연·체험 프로그램·관광 시설’ 등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문화관광 공간으로 변모한 생활공간에서 더불어 살아갈 대안이 필요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화성, 화성행궁, 팔달문 전통시장’ 일대의 기존 콘텐츠와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한계점과 보안점을 검토해보았다.

2장에서 이 지역과 관련한 기존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분석한 결과, 정조 시대와 관련한 콘텐츠에 집중한 스토리텔링의 부각으로 인해 근대와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문화 콘텐츠와 설화 콘텐츠가 수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 지역과 관련한 출판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현장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역과 관련한 스토리텔링이 일부 시대에 그치는 한계는 지역에 대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광이 단기적 관광에 멈추는 문제와 귀결되었다. 축제나 행사가 없을 때, 이곳을 찾은 외부 관광객은 화성과 화성행궁 등의 일부 문화재만 관람하는 일시적(一時的) 관광 형태를 보였다. 관광이 일부 공간에 치우치자, 공간 활성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 주민은 관광 지구로 변화한 생활공간에 완전히 융합되지 못해 일부 괴리되었다. 관광 지구를 생활터전으로 삼은 주민은 외부 관광객이 오래 머물러 경제적 효과를 일정하게 창출할 수 있을 때, 지역에서 더 많은 시도와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화성·화성행궁·팔달문 전통시장'의 역사·문화 공간을 다면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한 '지역 공간 연결 스토리텔링'을 3장에서 제안하였다. 지역 공간 연결 스토리텔링은 역사문화 콘텐츠와 예술·공연 콘텐츠를 토대로 각 공간을 연결하는 '트레일 스토리텔링'과 '설화를 활용한 벽화골목 스토리텔링'이다. '트레일 스토리텔링'은 이 지역의 공간 연계를 위해 '역사문화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 '문화예술중심형 트레일 스토리텔링'으로 유형화하여 4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또한 18세기 화성 축성 이후 발생한 설화와 지역에 산재한 설화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벽화골목'을 '설화 벽화골목'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트레일 스토리텔링은 초기 제안에 불과한 것이며,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와 예술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예술적 요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스토리텔링이 지역 상황에 기반을 하기에 해

당 지역의 현장 문제에 따라 변동되는 한계도 있을 것이다. 추후 이점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수원 '화성·화성행궁·팔달문 전통시장' 일대의 공간은 '18세기 조선, 근대조선, 일제강점기' 등 시대별로 여러 사건과 이야기 및 변화를 품고 있다. 때로는 조선의 르네상스에 대한 희망으로, 때로는 외세의 강압에 의한 좌절의 공간으로, 때로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변화의 공간으로 '화성·화성행궁·팔달문 전통시장' 일대는 자리해왔다. 부족하나마 본 연구가 '화성·화성행궁·팔달문 전통시장' 일대의 공간을 연결하는 지역 스토리텔링 작업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김광옥, 『설화를 활용한 공간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제주 남부 해안도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통권2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김동욱,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02.

김명선, 『우리아이 첫 수원화성 여행』, 삼성당, 2011.

김민지, 이태희, 『수원화성 체험(4Es)이 관광객-관광지브랜드 관계(BRQ)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4권 제3호, 한국사진지리학회, 2014.

김영빈, 『문화재와의 연결을 통한 상업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화성과 지동시장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_____, 이현호, 『공공성 요소를 통한 전통시장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연구: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 제31권 제1호(통권 제55집), 대한건축학회, 2011.

김준혁,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여유당, 2008.

_____, 『정조의 꿈이 담긴 조선 최초의 신도시, 수원 화성』, 스킵김영사, 2006.

김진국, 『정조의 혼 화성을 걷다』, 이너스, 2010.

_____, 김준혁, 『우리가 몰랐던 정조, 화성이야기』, 수원화성박물관, 2010.

김진형, 『지자체의 문화콘텐츠 가치제고를 위한 멀티유즈(Multi Use) 체계 적용방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4.

브랜드스토리, 『왕이 만든 시장』, 멋진세상, 2011.

문재인, 『만화로 배우는 수원 화성 바로알기』, 수원시, 2008.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화성성역의궤』(영인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4.

서인원, 『대구 도심 트레일 개발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12.

성영아, 변민주, 『벽화마을 보존과 계승을 위한 정체성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제14호, 과학문화전시대자연연구소, 2013.

수원박물관, 『인물로 하는 수원역사 이야기(근대 수원과 수원사람들)』, 수원박물관, 2013.

_____, 『수원』, 수원박물관, 2012.

- _____, 『(수원시)화성안 마을지』, 수원박물관, 2010.
- 수원시, 『수원 화성행궁』, 수원시, 2003.
- _____,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주요자원 발굴 2011.12』, 수원시, 2011.
- _____, 희망제작소, 『수원시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기반조성 연구 2011』, 수원시, 희망제작소, 2011.
- 수원시·수원문화원, 『수원지명총람』, 수원시·수원문화원, 1999.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7 수원의 사회변동과 주민생활』,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 _____, 『수원시사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 _____, 『수원시사17 수원화성』,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 신선미, 〈벚꽃 덕에 팔달문거리 웃음꽃〉, 《경인일보》, 2015. 04. 13. 제6면.
- 양대승, 『발도장 쿵쿵 가자! 조선 실학, 수원 화성』, 도서출판 핵교, 2011.
- 윤재천 외, 『성곽의 미, 수원화성』, 코드미디어, 2014.
- 이규진, 『파체』, 책발, 2014.
- 이용호, 『수원화성의 보존과 향후 계획』, 『건축』제 53권 제11호, 대한건축학회, 2009.
- 이정범, 『수원 화성과 정약용』, 서강북스, 2005.
- 조소현, 『조선의 신기술과 개혁 정신이 빛은 위대한 유산, 수원 화성』, 열린박물관, 2006.
- 최진연, 『수원화성, 긴여정』, 주류성, 201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한영우, 『〈반차도〉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 효형출판, 2007.
- 홍은미, 『효자 원이』, 윈터랜드, 2006.
- 황은주, 『정조와 함께 가는 8일간의 화성행차』, 그린북, 2013.
- 황폐강, 『한국 고전문학과 원형』, 『국문학논집』 제11호,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Abstract

Storytelling Proposal of Connecting Local Areas

: Focusing in the Content and the Site of 'Hwaseong, Hwaseong Temporary Palace, Paldalmun Gate Traditional Market' in Suwon

Ro, Hye jin

This study suggests storytelling proposal of connecting local areas to vitalize a daily market around the area of 'Hwaseong, Hwaseong Temporary Palace, Paldalmun Gate Traditional Market' in Paldal-gu, Suwon-si, Republic of Korea.

'Hwaseong, Hwaseong Temporary Palace, Paldalmun Gate Traditional Market' represent the ideals of an erudite king who worked for a political and cultural renaissance in 18th century. A variety of cultural events and festivals revived since Suwon Hwaseong was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1997. Despite of these efforts, regional tourism leaves a lot to be desired to activate it permanently. In addition, there are a lot of limits that the number of tourists changes depending on certain events like festivals and performances, local residents are not integrated, but divorced from community space, which was changed into tourism area and historical/cultural spaces of 'Hwaseong, Hwaseong Temporary Palace, Paldalmun Gate Traditional Market' are not connected with the events.

Hence this study examined the situation in 'Hwaseong, Hwaseong Temporary Palace, Paldalmun Gate Traditional Market' region and stud-

ied established contents and related storytelling, then prepared the storytelling plans to connect local areas. In the process, it suggested the ‘trail storytelling’ and ‘storytelling using folk tales’. ‘Trail storytelling’ is divided into ‘history cultural type trail storytelling’ and ‘cultural art type trail storytelling’. In addition, it formulated a proposal to specialize ‘Mural Alley’ into ‘Hwaseong Folk Tale Mural Alley’ using folk tale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foundation of storytelling projects to connect the whole area of ‘Hwaseong, Hwaseong Temporary Palace, Paldalmun Gate Traditional Market’ in the future.

주제어: 지역 공간 연결 스토리텔링(Storytelling Plans of Connecting Local Areas), 트레일 스토리텔링(trail storytelling),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using folk tales)